

참모습 찾는 탐구심이 화두



지나면서 저절로 소멸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부처가 될 때까지 보임을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업을 피할 수 없었듯이, 업은 소멸될 때가 되어야 소멸되는 것입니다. 견성을 하여 본심을 지키면서 보임공부를 하면 다생의 습기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돈오 이후의 돈수는 인위적이고 작위적인 수행이 아닌, 무위법(無爲法: 닦는 바 없이 닦는 무념·무심의 無修之修)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돈오점수(頓悟漸修)에서는 55위의 차제(次第)가 있지만, 돈오돈수에서는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공부가 됩니다.”

-큰스님께서는 세 번 공부의 큰 경계를 맞으셨다고 들었습니다.

“17세에 백양사 운문암에서 금타 선사를 친견하고 ‘이 뭘고?’ 화두를 받은 후 모악산에 들어가 6년간 토굴수행을 한 후 23세에 처음 선지(禪旨)를 얻었습니다. 이 때는 화두가 잠이 깊이 들어도 역력하게 이어져, 시간이 오래 흘러도 몸이나 생각이 간 데 없고 오로지 한마음 한뜻으로 화두 뿐

이었습니다. 29세에 동산 큰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받은 후, 31세 때는 지리산에서 토굴수행을 할 때 도안(道眼)이 열려 한 번 더 계승을 읊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지리산을 나와 범어사 선원에서 37세 때 계승 하나를 더 지었습니다.

도(道)는 어느 곳에 있는고? 보고 듣는 것이 그대로가 도더라. 알고 보니 도는 그대로 되어 있더라.

어느 곳에 다시 도를 구할 것인가? 숨음과 나타남이 때가 같아 이것이 바로 묘한 깨침이라.

누가 나에게 도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나는 한 번 웃음으로 그 답을 대신하겠노라.

-말법시대에는 도인이 적고, 도인이 나와도 알아 보기 힘든 것입니까?

“대도는 바다처럼 깊어 말이 없고 흔적이 없으며 우주법계를 초월한 것입니다. 말법시대에는 상근대지(上根大智)가 나오기도 어렵고 도가 드러나기 힘든 것입니다. 중근기는 상근기를 알아볼 수 없으며, 소인은 대인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하근기가 중근

기가 되고, 중근기가 상근기가 되어 단박에 언하대오(言下大悟)하려면 다생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한 부처가 출현하면 하나의 세계가 건립되는 도리가 있습니다.”

사자굴에서는 사자새끼만 산다더니, 금정선원이 재가도량이면서도 출가도량 못지 않은 범상한 기운이 서려있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참선과 불사행을 통해 융맹정진하는 대명화 원장을 비롯한 금정선원 도반들이 깊은 신심과 원력으로 자리이다(自利利他)의 보살도를 닦는 모습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대정 스님의 무애자재한 심지법문(心地法門)을 듣고 마음밭을 아름답게 가꾸는 깨끗한 수행자들의 모습에서 불교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여전히 찬란한 불심수도의 범등(法燈)을 기억하며 상경하는 부산시내의 불야성(不夜城)이 한 폭의 불국토를 그려놓은 것만 같다. 있는 그대로가 정토이니, 길만 나서면 서울 가는 길이다. 고속도로가 막혀도 마음은 어느새 서울이다.

글·사진:김성우(작가·본지 논설위원)



석길암의 한국불교 승려열전

일엽 선사(1896~1984)①

“어찌다가 여자로서 불교를 받게 된 사람이 있으면, 아들과 딸이나 낳기 위해 혹은 병이나 고치고 복이나 받기 위하여 혹은 늙어 죽은 뒤에 극락세계나 가기 위하여 믿음을 뿐이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불교의 감화를 입어서 위대한 인격을 발휘해 가정의 어머니, 사회, 국가의 어머니가 되어서 세상을 건지는 여장부가 되려는 신념 밑에서 불교를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1924년 ‘조선불교월보’ 제67호(1924년 7월)에 김광호가 쓴 글이다. 구한말부터 국권상실기에 이르는 근대화 초기 시절, 조선 불교계에서 바라본 여성 불자들의 신앙에 대한 소감이 다. 1927년 동아일보 기사 중에는 “자기를 믿는 것은 만용 부리기를 좋아하는 방면이요, 자기를 의심하는 것은 미신을 일삼는 방면이다. 남성과 여성의 이

런 부친의 영향으로 교회에 다니고, 이화학당에 수학하면서 자연스레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일찍 개화했던 이른바 신여성이었다. 일본에 유학하고 돌아온 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잡지인 ‘신여자(新女子)’를 창간해 스스로 주간으로 활동하였던 근대 한국 여성운동의 선구자였다. 소설가이자 수필가이며 시인이기도 했던 스님은 당대를 대표했던 여성운동가이자 사회개혁가 등 수많은 형용사가 따라 붙는다.



일엽 스님이 수행한 견성암.

하지만 가족과 가정에 예뻐한 듯 보였던 그가 세상을 벗어났던 것은 작은 굴레 때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엽 스님의 출가 사유에 대해 섣뭇 떠오르는 생각은 ‘시대가 그를 수용하지 못했던 것’, 아니 ‘그가 시대를 용납치 못했던 것’일까. 1933년, 스님은 당대의 선지식이었던 만공 선사를

신여성 대명사, 여성불교 길 열어

두 방향을 살피면 남자 측에는 무식하다는 반면 그와 같은 만역 행위가 많이 있고 미신적인 것은 적으나, 여자들은 그와 반대로 무식할수록 미신으로 들어가는 점이 많다”던 글이 실리던 시대였다.

일엽 선사. 김일엽으로 더 많이 세간에 알려져 있고, 신여성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하는 이다.

“남편은 재가승... 남편이 돌아와야 벌써 저녁 때인가 하고, 해 가는 것을 알 때에도 있다. 나는 아무 것도 모르는 것만 괴로워하는 대중(大衆)에게, ‘그릇된 불교 견해를 보고 오해하지 말고, 직접 불문(佛門)에 들어가 보아오. 우주의 대진리를 발견할 터이니’ 하고 목소리가 쉼 없이 외치고 싶은 충동도 자주 받지만, 좀 수양(修養)하고 배운 후에, 붓으로, 말로, 포교 사업에 힘쓰기로 서원을 세울 뿐이다.”(이희중 역, <김일엽산문집>, 지만지 고전선집, 2008)

출가하기 얼마 전 재가승이었던 남편과 살던 시절에 쓴 글 한 토막에는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치부되던 여성 불자에 대한 소묘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 확연히 다가온다. 당시로서는 생경했을 여성의 모습이고, 생경했을 여성 불자의 모습이기도 했을 것이다.

스님은 평남 용강 출신으로, 목사(牧師)였

은사로 출가해 수덕사 견성암 등에서 수행했다.

“불교 진리를 알고 싶은 생각이 솟음처럼지만, 중이라는 남편에게 원만한 해답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유감일 뿐”이라고 할 정도였으니, 불교에서 간절했던 무언가를 발견했던 것은 아닐까.

“무적(無的) 존재인 인간적 본정신(人間の本情神)을 찾아 임의로 쓰게 되는 때라야 인간적 생활이 개막되는 것이다. 그 때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 인간이 되어 어느 때 어느 몸으로 어디서 어떤 생활을 하던지 안심임명(열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일엽 스님이 지향했던 처소를 발견한다. 여성이 아닌 자리, 인간적 생활이 개막되는 자리가 바로 그 처소이다. 30년 동안 한 번도 산문을 나서지 않고 임승(入繩)적을 지켰다는 전설 같은 일화의 출발점을 여기에서 발견한다. ‘여성’이 ‘인간’이 아니었던 시대에 ‘여성’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거기에 있었던 까닭이었을 게다.

30년을 쉬지 않고 휘둘렸던 붓끝의 행방에서, 필자는 세상에서 벗어났지만 세상을 놓을 수 없었던 한 승려의 새로운 행로를 발견해야 한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100% 순수 국내산! 국내산이 아닐경우 1억원 배상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自然 품격 높은 최고의 선물!!!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께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 (고혈압, 저혈압),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0년, 120년 외 자연 산삼 보유. (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 20년근 이상 장뇌산삼 보유.

30년 전통의 산삼취급 전문업체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 서울 (02) 713-7798 / 010-5250-7798

심마당 국립농산물 품질관리 검정필 (분석 51160-150)